

## 조이스의 파넬주의와 사회주의: 「파넬 추모일의 선거사무실」을 중심으로\*

민 태 운

파넬(Charles Stuart Parnell)은 19세기 후반의 정치적 거물로 아일랜드의 자치(Home Rule)를 위해 애썼지만 영국인 정부(情婦) 캐서린 오웨이(Katharine O'Shea)와의 간통으로 인한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가파른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는 카톨릭 교회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채 1891년 10월 6일 죽음을 맞이하였다. 파넬의 몰락은 어린 조이스(James Joyce)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것은 그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은 아픈 기억이 되었다. 그 아픔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두 번째 장의 크리스마스 만찬 장면에서 눈물을 보이는 아버지에 대한 묘사에서 인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이스는 9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영웅 파넬이 그의 심복이었던 힐리(Healy)에게 배신당한 것을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각각 로마의 시이저와 부루터스에 비유한 「힐리 너마저」("Et tu, Healy")라는 시를 쓰기도 하였다. 그 시는 “카톨릭 주교들의 분부대로” 비열한 행동을 해서 파넬의 적이 되었던 “배반자에 대한 신랄한 비난”이었다(Stanislaus Joyce 45). 그 이후로 조이스는 그의 에세이와 작품을 통해 그가 파넬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 이 논문은 2006년도 전남대학교 연구년 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를 구원할 예술가로서의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모세를 각각 파넬과 동일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롯 유다에 배신당한 예수를 파넬과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파넬의 망령」(“The Shade of Parnell”)에서 그는 국민의 신망을 한 몸에 받았던 아일랜드의 지도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자신의 동포들에게 배신당했는지에 대해 쓰고 있다. 이처럼 그의 파넬에 대한 존경은 대단한 것이어서 은연중에 자신을 파넬과 동일시할 정도였다. 그의 자서전적인 작품인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힘 센 학생인 웰즈(Wells)의 희생자가 되어 양호실에 아파 누워있는 스티븐은 자신을 배신당해 몰락한 후 죽음을 맞이한 파넬과 동일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파넬이 죽음을 맞이한 시점과 스티븐이 웰즈에 의해 시궁창으로 떠밀리게 된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엘만의 지적대로, 조이스가 평소에 자신을 배신자들에 의해 배반당한 파넬 같은 희생자의 이미지로 보고 싶어 했던 것과도 일치한다(Elmann 293). 그는 조국 아일랜드를 방문하였지만 출판문제로 좌절을 겪으면서 쓴 글, 「화구에서 나온 가스」(“Gas from a Burner”)에서 추방당하는 예술가를 배신당한 지도자와 연결시킴으로써 아일랜드에 의해 배신당한 파넬과 망명을 선택하여야 했던 자신을 하나로 엮고 있다. 조이스에게 아일랜드의 예술가와 정치가는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Manganiello 18). 이런 맥락에서 보면 파넬은 군중/아일랜드 국민으로 인해 고통받는 “예술가에 대한 동류어(同類語)”(Deane, “Parnell” 183)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조이스의 의식에 파넬주의는 매우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 나오는 「파넬 추모일의 선거사무실」(“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은 비록 파넬의 사후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조이스의 작품 중 파넬이 가장 부각되어 나타나는 이야기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야기가 파넬의 11번째 추모일인 1902년 10월 6일에 일어나고 있다는 데서 볼 수 있다. 이 날 이야기 속의 많은 사람들은 옷깃에 파넬의 추모를 의미하는 담쟁이덩굴 잎을 부착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가 파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은 제목에서 암시되어 있다. 제목에 있는 담쟁이 덩굴(ivy)은 파넬이 이끄는 당의 상징으로 아일랜드가 영국의 지배로부터 부활할 것임을 나타내고, 또한 이것이 무성하게 자랐던 아본데일(Avondale)에 있는 파넬의 저택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Ivy Day”는 고인이 된 파넬을 추모하는 날을 가리킨다. 그리고 파넬의 장례식 때 몰려

든 조문객들이 묘지 주위에 자라고 있던 담쟁이 덩굴 잎을 따서 양복의 깃에 달았던 일화 때문에 파넬 추모일에 모두들 그것을 깃에 달게 되었다고 한다. “위원회실”(Committee Room)이란 여기서는 시의원 후보인 티어니(Tierney)의 선거 사무실을 가리키지만 파넬이 자신이 이끌던 당[Irish Parliamentary Party]의 지도자 자리로부터의 추락이 결정된 곳이 웨스트민스터의 국회의사당 15호 위원회실(Committee Room XV)이라는 점에서 파넬의 운명이 결정된 장소를 시사한다. 거기서 파넬은 45대 29로 퇴진이 결정되었다(Kee 135). 조이스는 이 회의에서 파넬 편에 지지표를 던진 사람들이 단지 8명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지만(CW 227), 이 이야기에서 시의회 의원에 출마한 티어니의 선거운동원들이 대략 8명이라는 점은 선거사무실과 현재의 정치판이 그 당시의 위원회실과 정치판의 패러디가 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또한 티어니가 운영하는 술집이 파넬의 아본데일 저택이 있던 위크로우 가(Wicklow Street)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티어니가 파넬을 패러디한 인물임을 알게 한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파넬과 파넬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블린의 중심지역인 “런던 거래소 구역”(Royal Exchange Ward)에서 파넬의 노선을 잇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족주의 진영(아일랜드 자치안[Home Rule]을 지지하는 자들)을 대표하여 나온 후보인 티어니는 패러디의 대상이 되고 있고, 오히려 급진적인 노동당계열의 연합 아일랜드 연맹(United Irish League)에서 나온 벽돌공(bricklayer) 콜간(Colgan)이 우호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제기의 실마리가 된다. 자신을 그와 동일시할 정도로 파넬에 밀착되어 있던 조이스는 이 작품에서 외형적으로는 파넬의 정치적 입장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는 민족주의 계열의 티어니보다 사회주의 노선의 후보자인 콜간을 선호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렇다면 조이스는 심정적으로 타락한 파넬주의보다는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조이스에게 중산층 중심의 파넬주의와 하층 중심의 사회주의는 어느 정도 양립가능한 것이었을까? 충성스러운 파넬주의자이며 콜간의 운동원인 하인즈(Hynes)라는 인물을 통해 조이스는 파넬주의와 사회주의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일까? 그 동안 좌파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아왔던 조이스는 어느 정도로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닌 파넬주의자이었을까? 혹은 이들은 그 당시 정치 상황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점들을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그 동안 조이스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지

만 그의 사회주의적 성향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그러한 측면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의 세계가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의 작품에 대한 해석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조이스는 최근 10여 년 동안 정치적인 작가로 재평가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정치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문체와 언어 등에만 흥미를 보이는 미학주의자로 간주 되어왔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라딕(Karl Radek) 같은 소련 작가들에 의해서 “당대 부르조아 문학의 영웅”(152)으로 조소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이스 자신은 정작 아일랜드에서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즉각적인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Ellmann 239). 조이스는 심지어 “만약 아일랜드 문제(Irish question)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주로 아일랜드의 프롤레타리아로 인해 존재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다(Manganiello 172). 물론 조이스의 사회주의는 그의 동생 스태니스로스가 평가하듯이 “깊이가 없는 것”이었고, 조이스 자신도 인정하듯이, “불안정하고 부족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었다(Ellmann 239). 또한 조이스가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실제로 그의 작품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계층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로 보였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페어홀(James Fairhall)도 지적하듯이, 그의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하층 중산계급(*petty bourgeoisie*)에 속했기 때문이다(39). 이런 점에서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에서 아일랜드의 하층민에 대한 친밀감을 충분히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델러니(Paul Delany)의 지적은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260). 예를 들면, 그의 흔치 않은 하층민에 대한 묘사들 중 하나를 살펴보자면, 「작은 구름」(“A Little Cloud”)에서 하층 중산계급에 속하는 주인공은 “지저분한 한 무리의 아이들”(a horde of grimy children, D 71)을 무시하며 지나칠 뿐이다. 또한 조이스의 난해한 작품 세계가 주로 지식층 독자들에게만 접근 가능했다는 점도 그가 하층계급보다는 엘리트층에 가깝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주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공언했고, 심지어는 스태니스로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회주의가 자신의 성격의 본질적인 부분임”(Ellmann 197)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나의 정치적 견해가 박애주의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것

은 사회주의 예술가의 견해이다. 가끔 내가 동시대인들보다 좀더 문명화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L II 88)

그는 『율리시스』(*Ulysses*)의 「키르케」(“Circe”)에서 제시되는 블룸(Bloom)의 거창한 박애주의적인 사회주의를 지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성격적으로 문명화된 상류층의 삶보다 하층민들의 삶에 더 이끌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이스와 사회주의의 인연은 그가 채 20세가 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1901년에 그가 번역한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Gerhart Hauptmann)의 희곡 『해뜨기 전』(*Vor Sonnenaufgang*)에는 이상주의적인 사회주의자가 등장한다. 엘만에 의하면, 조이스는 이 작품을 통해 그가 혐오하는 폭력에 대한 가능한 “해독제”로서 사회주의를 생각하였다(87). 하우프트만의 또 다른 작품이 「가슴아픈 사건」(“A Painful Case”)의 더피씨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 조이스가 입센의 후계자로 간주한 하우프트만에 대한 그의 관심이 일회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903년에 조이스는 헨리가(Henry Street)에서 열린 사회주의자들의 모임에 가끔 참석하였다(Ellmann 142). 스타니스로스도 그와 함께 이러한 모임에 참석했던 것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다.

그의 정치적 경향은 사회주의였고, 「가슴아픈 사건」에 나오는 더피씨처럼 골방에서 열리는 사회주의자들의 모임에 자주 참석하였다. 나도 가끔 이 흐릿한 조명이 있는 우울한 장소에 형을 따라가서 설득력도 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169-70).

또한 1904년에 그가 쓴 에세이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초고의 결론 부분에서 사회주의적 미래를 그려 보이고 있다는 점도 그가 이즈음에 이러한 사회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듯이 보인다. 스타니스로스가 쓰고 있듯이 조이스는 트리에스테(Trieste)에서도 계속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불렀다(170). 그가 폴라(Pola), 트리에스테, 로마(Rome) 등에서 『더블린 사람들』, 『영웅 스티븐』(*Stephen Hero*)를 집필하고 있을 때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지적인 관여는 절정에 이른 듯하다(Fairhall 50). 그것은 1906년에 그가 스타니스로스에게 쓴 편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너는 자주 나의 사회주의적 성향에 적대감을 보여 왔지. 하지만 너는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성직권주의(clericalism), 귀족주의, 혹은 유산계급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프롤레타리아의 해방, 그것을 연기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압제로 복귀함을 의미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니? (L II 148)

이 편지에서 우리는 조이스가 프롤레타리아의 즉각적인 등장을 원하고 있다는 것, 그의 사회주의는 성직자들에 의한 억압 등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앞으로 작품을 통해 “모든 종류의 압제”에 대항하여 싸우고자 한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사회주의를 그가 대항해야 할 모든 “압제”에 대한 대항마로서 설정했다는 점에서 그가 이 시점에서 사회주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멘가니엘로도 주장하듯이, 민족주의자들은 오로지 한 가지 종류의 압제, 즉 “외국인 정복자의 압제”에 대해서만 저항했지만 조이스는 이 온갖 종류의 압제가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66). 「파넬 추모일의 선거 사무실」에서 선술집, 빈민가 셋집 등의 주인인 티어니는 민족주의 계열의 후보이지만 외세에 대한 저항 의욕은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 있는 부르주아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그의 정치적 소속에도 불구하고 온갖 종류의 “압제”를 행사하는 집단에 근접한 인물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조이스가 이 이야기의 집필을 끝낸 1905년은 그가 사회주의에 한참 심취해 있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조이스는 트리에스테에 머무르는 동안 노동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사회주의자들이 쓴 저서들을 탐독하였다. 또한 그가 로마에 살고 있던 1906년 10월에 이탈리아 사회당 (Italian Socialist Party) 전당대회가 열렸고, 그는 당내의 각 분파가 어떤 논쟁을 하는 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을 정도로 사회당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조이스가 로마에 있는 동안 흥미를 느꼈던 이탈리아의 다양한 사회주의 분파들 간의 논쟁은 동생 스타니스로스에게 보낸 그의 편지 등에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후인 1907년 3월 조이스는 “사회주의 등등에 대한 관심이 나를 떠났다”(L II 217)고 말함으로써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열정이 이 때쯤 어느 정도 식었음을 암시한다.

조이스의 사회주의는 그 자신의 단순한 생각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서 그가 스타니스로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의 사회주의에 대한 입장이 계속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Ellmann 197). 로마의 포도주 가게에서 누군가가 조이스가 사회

주의자인지를 물었을 때 조이스의 친구는 그가 “이것저것 조금씩 섞인 사회주의자”(L II 183)라고 말함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조이스의 변화무쌍한 개념을 요약 해주었다. 하지만 맨가니엘로는 조이스의 사회주의를 세밀히 분석하면서 그가 다양한 분파 중에서 특히 노동조합주의(syndicalism)와 무정부주의(anarchism)에 흥미를 보였음을 지적한다. 조이스는 두 흐름 중 노동조합주의보다 무정부주의에 훨씬 더 큰 매력을 느꼈고 많은 무정부주의자들이 쓴 글을 거의 읽고 있었다(Fairhall 51). 여기서 조이스가 생각했던 무정부주의란 혼란스러운 무정부 상태라기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혹은 종교적 권력기관에 의해 대표되는 강압적 기관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을 가리킨다고 하겠다(Manganiello 73). 조이스는 『영웅 스티븐』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 등을 통해 주인공 스티븐이 이러한 강압적인 기관이 만들어낸 표준에 대해 저항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주인공 스티븐의 “*non serviam*” (섬기지 않겠다)의 선언은 이러한 기존질서에 저항하는 무정부주의자/반항아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이스는 노동조합주의의 지도자인 라브리올라(Arturo Labriola)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Gorman 183). 라브리올라는 총파업이라는 수단을 지지하였고 의회 사회주의(parliamentary socialism)에 반대하였다. 조이스는 의회의 아일랜드당이 파넬을 몰아냈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일랜드당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았고 따라서 라브리올라가 의회 사회주의에 반대한 것에 호감을 가졌다(Fairhall 51). 또한 프롤레타리아의 즉각적인 등장을 원했던 조이스가 점진주의(gradualism)의 입장을 견지하지 않고 그 계층의 등장을 앞당기려 하고 있는 라브리올라에게 이끌리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Manganiello 66). 여기서 우리는 라브리올라가 사회주의자가 된 후 교회를 떠나 반 성직권주의자(anti-clericalist)가 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이스 자신이 반 성직권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회주의가 성직자의 억압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은 성직자, 노동자, 파넬주의자 등이 등장하는 「파넬 추모일의 선거 사무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파넬 추모일의 선거 사무실」에 등장하는 성직자들은 그 당시의 현실에서처럼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선거운동원인 오코너(O'Connor)는 헨치(Henchy)가 그라임스(Grimes)는 어떻게 투표할 것 같은지 묻자 “잘 될 것 같다”(D 123)는

결론을 내린다. 그 이유는 그라임스가 티어니의 추천인들(nominator)이 누구인지 물었고 자신이 버크 신부(Father Burke)의 이름을 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당시 더블린에서 혼란 일이었듯이 성직자가 선거후보의 추천인이 됨으로써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키언 신부(Father Keon)는 선거 사무실에 와서 「은총」(“Grace”)에서 시장(mayor) 만드는 정치꾼으로 나오는 페닝(Mr Fanning)을 찾는다. 그가 떠난 후에 오코너는 헨치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한”(thick) 듯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둘이서 카바나 주점(Kavanagh’s)에서 자주 얼굴을 맞대고 있다고 말한다(D 126). 이 또한 성직자가 세속의 권력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키언 신부는 페닝과 더불어 티어니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신부들과 민족주의 정치인이 결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크리스마스 만찬 장면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다. 만찬에서 파넬 옹호자들인 케이시씨(Mr Casey)와 사이몬(Simon Daedalus)은 성직자들이 설교를 통해 파넬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파넬측 후보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에 관해 불만을 토로한다. 결국 댄티(Dante)로 대표되는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와 케이시씨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자간의 다툼이 격화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파넬주의자들은 파넬이 그의 반대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그들 때문에 죽게 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케이시씨가 “추장이 돌아가시기 전에”(before the chief died)라고 하자 사이몬은 즉시 “살해당하시기 전에”(before he was killed)(36)로 고쳐서 말한다. 이 두 진영은 분명하게 나뉘어져 댄티는 “하느님과 종교가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39)고 외치고, 반면에 케이시씨는 “아일랜드에는 신이 필요없다”(39)고 소리치르는 극단적 입장에까지 이르게 된다. 댄티는 민족보다도 종교가 위에 있다는 것이고 케이시씨는 그렇다면 아일랜드에는 그런 종교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넬 추모일의 선거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양자대립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파넬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민족주의 계열의 후보자가 파넬을 몰락시키는 데 앞장섰던 성직자들과 정치적으로 맞서는 대신 그들과 결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넬 추모일인 이 날 사람들은 상의에 담쟁이 잎을 꽂음으로써 파넬을 추모하지만 키언 신부는 그러한 상징물을 부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반파넬주의자임을 보여준다. 민족주의 계열의 정치인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이러한 반파넬주



의자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파넬 사후의 민족주의 정치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전통적인 적이라 할 수 있는 보수당 사람과도 같이 일하고 있다. 친영파이며 소수파인 보수당은 자기 당의 후보인 윌킨스(Wilkins)를 사퇴시킨 후 아마 “둘 중 덜 악한”(D 131) (즉 덜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 쪽의 손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보수당 출신의 크로프턴(Crofton)이 민족주의 진영의 티어니의 선거운동 캠프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페어홀은 라이온스(Bantam Lyons)도 보수당에 속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93)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럴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텍스트에서 라이온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크로프턴만이 보수당원이라고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라이온스는 가톨릭 신부들의 반파넬주의를 지지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보수당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영국왕의 아일랜드 방문을 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은 그가 크로프턴 같은 보수당원들과 달리 친영파가 아닐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참고로 「은총」에서 크로프턴은 개신교도이자 친영파(Orangeman)로 설명되고 있고(D 165), 이 이야기에서도 왕의 방문을 환영하는 사람으로 나온다. 하지만 라이온스는 파넬이 자신의 비도덕적 행동 때문에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났듯이 영국의 에드워드 7세도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환영 받을만한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펴나.

- 하지만, 에드워드 왕의 삶이 바로 그 . . . 라이온스씨가 따질 듯이 물었다.
-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난 그 양반을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네. 그 분은 당신이나 나 같이 놀기 좋아하는 보통 사람이네. 술 좋아하고 아마 약간 난봉꾼에다 멋있는 스포츠맨이네. 젠장, 우리 아일랜드 사람들은 페어 플레이를 하면 안되나? 헨치씨가 말했다.
- 뭐 그건 다 좋네, 하지만 이제 파넬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라이온스씨가 말했다.
- 도대체 두 경우에 무슨 유사성이 있다고 그러는 건가? 헨치씨가 말했다.
- 무슨 말이나 하면 우리에겐 우리의 이상(理想)이 있네. 자,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환영해야 하는 건가? 파넬이 그런 짓을 하고도 우리의 지도자로 적합했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왜 에드워드 7세를 환영해야 하는 건가? 라이온스씨가 말했다.
- 오늘은 파넬의 추모일이니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말세. 이제 그 분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모두 그 분을 존경하는 것 아닌가. 보수당원들까지도. 오코너씨가 크로프턴씨를 돌아보며 말했다. (D 132, 필자의 밑줄)

여기서 오코너가 라이온스에게 말하면서 보수당원을 언급하며 크로프턴을 향한다는 것은 크로프턴만이 보수당원이라는 것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온스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나오는 댄티처럼 성직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파넬주의자로 볼 수 있지만 보수당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는 댄티와 유사하게 파넬의 도덕성을 공격하고 지도자로서의 부적격성을 강조한다. 다만 그녀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녀의 절대적인 종교 대신에 그는 막연히 “이상”(ideal)을 말하고 있다는 정도일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자매」(“The Sisters”)에서 코터(Mr Cotter)가 타락한 성직자인 플린 신부(Father Flynn)를 가리킬 때 위에서 라이온스가 에드워드 7세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사람”(a man like that)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이다. 코터는 자신의 자녀들이라면 절대 그런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플린 신부를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내몬다. 그것은 라이온스가 영국 왕과 파넬에 대해서 갖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이처럼 선거사무실(committee room)에서 파넬을 비난하는 등 그에 대해 논쟁하는 모습은 파넬의 몰락 직전 웨스트민스터의 영국 하원 15호 위원회실에서 그의 운명을 두고 논쟁했던 장면을 연상케 한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그리고 있는 것은 딘(Deane)의 표현대로 “파넬 세계의 희미한 모방 혹은 그림자 같은 것”(“Dead ends” 29)일지 모른다. 파넬은 자신의 추모일에 다시 한 번 위원회실에서 상징적인 몰락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목표는 더 이상 파넬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헨치가 아래에서 말하듯이 파넬은 이미 죽었고 그의 가치관이나 목표도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다. 현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이다.

- 들어봐. 내가 와드 노인에게도 말했듯이, 이 나라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일세. 왕이 여기로 온다는 것은 이 나라로 돈이 흘러들어온다는 거를 말하는 거네. 더블린 시민들은 그 덕을 볼 걸세. 부둣가에 놓고 있는 모든 공장들을 보게. 우리가 옛 산업, 제분소나 조선소, 그리고 공장들만 돌아가게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 생길 것인지 생각해 보게. 우리가 필요한 건 자본일세, 헨치씨가 말했다.
- 하지만 이봐 존. 왜 우리가 영국 왕을 환영해야 하나? 파넬 그분도 . . . 오코너씨가 말했다.
- 파넬은 죽었어. . . . (D 131-32)

헨치가 사무실에 들어서며 맨 처음 한 말이 “돈”에 관한 것이었고 티어니를 위해 선거운동하는 유일한 목적이 술과 돈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가 파넬주의보다 자본을 중요시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유일한 파넬주의자라 할 수 있는 하인즈가 자신의 옷깃에 부착된, 파넬을 상징하는 담쟁이 잎을 가리키며 “이 분이 살아계신다면, 환영사 얘기 따위는 꺼내지도 못할 텐데”(D 122)라고 말하는 것은 파넬의 죽음이후 파넬주의가 힘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의 시작부터 자주 잭 노인(Old Jack)이 뜬 숲을 석탄더미 위에 뿌리며 불을 살려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마치 그가 자신도 모르게 그의 행동을 통해 꺼져 가는 파넬주의의 불씨를 살리려고 함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는 듯이 보인다. 『울리시스』에서도 블룸(Bloom)은 점점 잊혀져 가는 파넬을 떠올리고 “파넬 추모일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Ivy Day dying out, U 6.855)는 생각을 하며 씩씩해 한다. 앞 인용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제는 파넬의 적이었던 보수당원들조차도 그를 존경한다는 것은 그가 죽어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티어니의 운동원들에게는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뢰나 그에 대한 헌신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헨치와 마찬가지로 모두 돈(과 술)을 위해서 일한다. 선거원들 중 오코너가 그나마 파넬을 잊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도 티어니로부터 당장 돈을 받지 못하자, “돈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위해 일하기를 바라지?”(D 123)라고 불평함으로써 그의 속내를 내비친다. 파넬은 이제 하인즈가 옳은 감상적인 창작품 「파넬의 죽음」(“The Death of Parnell”) 안에서만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파넬이 더 이상 현실에서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없으므로 친영파인 크로프턴도 파넬에 대해서 쓴 시에 대해서 “잘 쓴 작품”(a very fine piece of writing)이라고 관대하게 칭찬한다(Booker 60). 파넬은 문학적 허구 속에 박제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헨치는 영국왕의 방문이 자본의 유입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휴업중인 공장들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에드워드 왕의 제국주의를 관용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자본에 의한 산업의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가 자본의 유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워드 노인에게 또한 같은 맥락에서 ‘자본가’ 티어니를 지지하는 말을 했다. “그 분은 고액 납세자예요. . . 시내에 광범위한 부동산이 있고 사업체가 세 군데나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낮추는 것이 그 분에게도 이롭지 않겠어

요?” 헨치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힘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쓰는 인물 유형으로 보인다. 딘(Deane)도 헨치가 “파넬시대의 민족주의”를 “에드워드 시대의 제국주의”에 타협시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본다. 따라서 그는 현재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배신자등으로 부른다(“Dead end” 31). 예를 들면, 그는 반제국주의 투사들(“hillsiders and fenians”)을 영국의 총독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배신자들로 내몬다(D 125). 또한 노동당의 콜간(Colgan)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하인즈를 “스파이”(D 124)로 전락시킨다. 그는 그 당시의 대다수의 아일랜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며(Fairhall 95), 이야기 속에서 가장 “반 노동운동적인 사람이며 반페니안주의자”(Deane, “Dead ends” 29)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하층민에 속하는 인물이 늙은 책임데 그가 헨치처럼 자본가와 권력가를 옹호하고 노동자를 경멸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는 노동자 출신인 콜간을 부를 때 앞에 Mr를 생략할 뿐만 아니라 “뜨내기”(tinker)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를 멸시한다.

노인은 불 옆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말했다.

— 어쨌든 [터어니는] 돈이 있으니까 [지불할 거야]. 다른 뜨네기와는 다르지.

— 다른 뜨네기라니요? 하인즈가 말했다.

— 콜간 말일세, 노인이 경멸하듯이 말했다.

—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콜간이 노동자이기 때문인가요? 선하고 정직한 벽돌공과 술집주인이 뭐가 다르죠—네? 노동자에게도 시정에 참여할 권리는 있지 않나요? 오히려 높은 양반 앞에서 항상 굽실대는 친영파 정치인들보다 그런 권리가 더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가, 맏? 하인즈가 오코너씨에게 말했다.

— 맞는 것 같네, 오코너씨가 말했다.

— 이 사람은 게으름이라고는 모르는 정직한 사람이네. 노동계층을 대표하기 위해 출마한 거지. 자네가 운동하고 있는 사람은 단지 이권 때문에 나선 거구.

— 물론, 노동계층도 대표할 사람이 있어야지, 노인이 말했다.

— 노동자는 모든 천대를 다 받아요. 하지만 모든 물건을 생산해 내는 것은 노동이지요. 노동자는 아들들, 조카들, 사촌들에게 돈벌이 잘되는 일자리나 얻어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아요. 노동자는 독일 군주[독일계 후손인 영국의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더블린의 명예에 먹칠하지도 않아요, 하인즈

씨가 말했다. (D 121)

하인즈는 노동자가 부의 정직한 생산자임을 주장하며 노동자 옹호론을 펴지만 정작 노동자 자신인 책은 노동자를 하시하며 헨치와 마찬가지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 편에 서서 말한다. 책은 키건(Keegan)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즉 노동자 출신 시장이 화려하게 접대하지 않고 매우 검소하게 소비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 시장을 경멸한다(D 125). 그는 「경주가 끝난 뒤」(“After the Race”)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기꺼이 억압받는 자들”(the gratefully oppressed, D 42)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 억압받는 입장에서 살아 온 노인은 이제 억압자들의 논리를 내재화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이 포함된, 억압받는 자들을 내려다보는 것이다.

하인즈는 이야기 속에서 유일하게 변절하지 않은 충실한 파넬주의자라 할 수 있다. 신문기자인 그는 『울리시스』의 「하데스」(“Hades”)장에서도 디그넘(Dignam)의 장례식에 취재차 참석했다가 묘지를 떠나기 전 파넬, 즉 “대장의 묘지”(the chief's grave, U 6.919)에 들르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페니언단원 케이시씨처럼 반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과격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반제국주의자이며, 비록 펜을 통해 생각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파넬주의자라는 점에서는 그와 유사하다. 헨치가 그를 페니언단과 관련이 있는 자로 보는 것은 그와 케이시 간의 유사성을 더 공고히 해준다. 한편, 깁슨(Andrew Gibson)에 의하면, 조이스의 아버지를 비롯한 그의 집안 어른들은 페니언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23). 파넬도 이혼 스캔들 사건 이후에 페니언단을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중심에 있는 단체로 여겼고 이에 페니언단도 파넬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였다. 따라서 페니언단과 파넬주의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밀접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는 자주 영국과 타협하는 편을 선택해왔을 뿐만 아니라 영국정부에 협조하기도 했기 때문에(Connolly 60-64), 페니언단은 “교회의 전통적인 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Gibson 23). 따라서 페니언단은 영국제국뿐만 아니라 교회에 맞선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티븐이 『울리시스』에서 자신을 두 주인, 즉 대영제국과 가톨릭교회의 “중”(U 1.638)이라고 함으로써 두 세력에 적대감을 보이면서 페니언단과의 유대감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파넬주의자들의 시각을 좇아 파넬이 영국과 교회의 공모에 의해서 몰락했다

고 보았을 때 그도 페니언단과 적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적 관점에서 영국과 교회의 공모를 주장한 사람이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였으며 1916년 부활절 봉기(Easter Rising)의 주동자로 처형당한 코넬리(James Connolly)였다라는 점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는 조이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Gibson 24), 이 이야기 속의 공간과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페어홀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조이스가 코넬리의 연설을 직접 들었고 그가 출마한 시의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96). 코넬리가 민족주의에 사회주의를 접목시키기 위해 아일랜드 사회주의 공화당(Irish Socialist Republican Party)을 창립한 1896년에 조이스는 겨우 14세에 불과하였지만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조이스는 이미 1901년에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우연히 코넬리와 조이스는 둘다 1903년의 시의회의원 선거 이후에 각각 아일랜드를 떠났지만 아마 1901년부터 1903년까지 조이스가 코넬리의 활약과 그의 이론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고 하는 페어홀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당시 아일랜드에서 사회주의자들은 극소수였고 따라서 코넬리와 그가 이끄는 사회주의 당은 “매우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Fairhall 96). 특히 코넬리는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축전과 보이전쟁에 항거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더구나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조이스가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인 주동자를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조이스가 「파넬 추모일의 선거사무실」보다 한달 일찍 집필을 끝낸 「가슴아픈 사건」에서 더피씨가 “한 아일랜드 사회주의 당(an Irish Socialist Party)의 집회에서 얼마동안 봉사”했다(D 110)는 말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조이스가 아일랜드내의 사회주의 정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902년<sup>1)</sup>의 선거를 다루고 있는 조이스의 이야기가 실제로 같은 해와 다음해 코넬리가 출마한 선거관 상황을 상기시킨다는 점이다. 코넬리는 두 번의 선거에서 노동자 후보로 출마하여 민족주의 계열의 후보와 맞섰으며 모두 낙선하였다. 코넬리는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중산층의 당”이라 하였는데(Fairhall 97), 이 이야기에서도 헨치를 비롯하여 티어

1) 에드워드 7세가 더블린을 방문한 것은 1903년 여름이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02년이 이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이 될 것이다.

나의 당선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에 속한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 코넬리를 물리칠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것, 즉 “종교, 술, 돈”(Fairhall 97)은 이 이야기에서 골간을 이길 방도로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코넬리는 민족주의 후보들이 시의회의원 선거에서 계속 당선되는 이유를 그들이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공짜 술” 탓으로 돌렸고(Daly 218), 술의 위력은 조이스의 이야기에서도 끊임 없이 들리는 마개 따는 소리 “퍽”을 통해 상기된다. 또한 신부들이 티어니의 당선을 위해 나서고 있듯이 그 당시 성직자들도 코넬리같은 사회주의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애썼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당시에 “민족주의 후보자들은 선거 때가톨릭 성직자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은 “선거구를 사회주의 침투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O'Brien 88). 사회주의 후보자에 대한 성직자들의 공공연한 비난으로 득표가 어려워진 코넬리는 그의 선거구 투표자들을 가리켜 “성직자들로 시달리는”(priest-ridden)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한다(O'Brien 88). 그런데 이것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크리스마스 만찬에서 파넬주의자인 사이몬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표현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케이지가 파넬의 애인을 모욕한 여자를 혼내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사이몬은 “성직자들이 지배하고 있어. 우린 성직자들로 시달리는 불행한 민족이야”(We are an unfortunate priestridden race, P 37)라고 말함으로써 코넬리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코넬리는 파넬주의자와 같은 입장에서 성직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고, 이야기 속의 골간도 직접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아마 그의 낙선을 위해 깊이 개입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성직자들에게 같은 비난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처럼 그 당시 아일랜드에서 사회주의자와 파넬주의자는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제국은 자본주의라는 수단을 통하여 식민지를 통치한다. 그렇다면 티어니처럼 자본주의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민족주의를 내세우지만 자신도 모르게 영국의 통치 구조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인용했듯이 하인즈가 노동자 대표와 대조시켜 민족주의자 정치인들을 “높은 양반 앞에서 항상 굽실대는 친영파 정치인들”(D 121)로 깎아내리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책적으로 민족주의 계열의 후보이지만, 하인즈가 예측하듯이, 그가 영국왕의 방문을 환영할 가능성이 많다.

- 우리의 후보[티어니]는 환영사 안에 찬성하지 않을 거네. 민족주의 진영의 후보로 나선 분이니, 오코너씨가 말했다.
- 찬성하지 않을 거라구? 그렇지 그렇지 않을지는 두고 보게.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아. 그래서 “교활한” 티어니라고 부르지 않는가? 하인즈씨가 말했다.
- 그건 그래. 아마 자네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 양반이 [우리에게 지불할] 돈을 가지고 나타났으면 좋겠네, 오코너씨가 말했다. . . . (D 122)

티어니같은 자본가들과 달리 자본주의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잉글리쉬(Richard English)가 단순화해서 설명하듯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전복시키고 싶을 것이다(204). 이런 맥락에서 민족주의에 사회주의를 접목시키려 했던 코넬리도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한다. “내일 영국 군대를 몰아내고 총독부에 아일랜드 국기를 올린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공화국 같은 조직이 건립되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영국은 아직도 자본주의자들을 통해, 지주들을 통해, 금융업자들을 통해 . . .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Selected Writings 124). 그로부터 약 20여년 뒤 코넬리는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계획된 부활절 봉기에 참여하면서 “노동운동의 대의(大義)는 아일랜드의 대의이고 아일랜드의 대의는 노동운동의 대의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Collected Works 175)고 함으로써 파넬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목적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사회주의는 억압받는 노동계급에, 파넬의 민족주의는 아일랜드의 자치에, 활동방향의 초점을 맞춘 것은 사실이지만 둘 다 아일랜드의 독립을 원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넬주의자인 사이몬과 사회주의자인 코넬리가 성직자들과 관련하여 동일한 표현을 쓰고 그들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조이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이스가 파넬을 이어받은 민족주의 후보를 패러디의 대상으로 삼고 오히려 노동계/사회주의 노선의 후보자를 우호적으로 그린 것은 전혀 모순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파넬주의가 약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단은 조이스의 파넬주의가 『율리시스』와 『피네간의 경야』 등 후기작품으로 오면서 약화되고 심지어는 소멸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Parnell” 187-88). 왜냐하면 초기작품과 이탈리아에서 쓴 에세이 등과 달리 후기 작품에서는 파넬에 대한 언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몇 있는 것도 파넬의 몰락과 관련하여



이렇다할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후기작들과 관련한 딘의 견해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간에, 「선거사무실의 파넬 추모일」에서 조이스의 파넬주의가 강하게 감지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파넬의 외견상 계승자인 티어니와의 대조를 통해 그의 부재가 더욱 부각된다는 점, 그리고 하인즈의 감상적인 시를 통해 죽은 지 11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그의 죽음에 대한 울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느껴진다.

하인즈는 충실한 파넬주의자이며 콜간같은 사회주의적 성향의 후보에 대한 지지자이다. 그가 충실한 파넬주의자이면서도 외형적으로 파넬을 계승한 민족주의 계열 후보자 대신 콜간의 당선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그것은 이야기 속의 정치가들이, 티어니의 선거운동원인 헨치가 대변하듯이, 영국왕의 방문, 나아가서는 제국의 수단이 되고 있는 자본주의를 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파넬주의자인 가톨릭 신부들과 공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이스는 “로마 [가톨릭]의 압제가 영혼의 궁전을 점령하고 있는데 영국의 압제를 비난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CW 173)고 씩소로써 유별나게 성직자들의 지배에 대한 강한 반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자들, 파넬주의자들, 그리고 페니언단원들은 그러한 성직자들의 공동의 적이었다는 점에서 같은 편에 선 자들이고, 최소한 이 시기의 조이스도 이들 편에서 성직자들과 맞서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페니언단원으로 의심받는 하인즈도 자신의 정체성에 가장 적합한 곳에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이 조이스의 파넬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모순을 반영하는 것(Fairhall 93)이라든지, 파넬과 코넬리가 상호배제적인 관계라는 진단(Fairhall 105)도 수정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적대관계는 파넬주의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사무실의 파넬 추모일」이 파넬과 그의 후계자들, 혹은 파넬주의와 왜곡된 파넬주의 간의 대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사회주의의 문제는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당 후보자인 콜간은 무대 밖에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 당시 더블린 정치 환경에서 민족주의 정치인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상대적 비중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이스의 생각 속에서 파넬주의와 사회주의의 부조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파넬주의가 이야기의 중심무대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

지만 주로 부패한 측면이 제시되고 있고 사회주의는 비록 초점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 부패에 대한 해독제로서 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무대 위의 인물들의 타락성 정도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무대 밖에 존재하는 죽은 파넬과 주변부의 콜간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둘은 부채를 통해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또한 파넬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양립 가능성을 던지지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전남대)

## 인용문헌

- Booker, M. Keith. *Ulysses, Capitalism, and Colonialism: Reading Joyce after the Cold War*. London: Greenwood Press, 2000.
- Connolly, James. *James Connolly: Selected Writings*. Ed. P. Berresford Ellis. Harmondsworth: Penguins, 1973.
- \_\_\_\_\_. *Collected Works II*. Dublin: New Books, 1988.
- Daly, Mary E. *Dublin: The Deposed Capital: A Social and Economic History 1860-1914*. Dublin: Cork University Press, 1984.
- Deane, Seamus. "Parnell: The Lost Leader." *Parnell: The Politics of Power*. Ed. Donal McCartney. Dublin: Wolfhound Press, 1991. 183-91.
- \_\_\_\_\_. "Dead ends: Joyce's finest moments." *Semicolonial Joyce*. Ed. Derek Attridge & Marjorie How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21-36.
- Delany, Paul. "Joyce's Political Development and Aesthetic of *Dubliners*." *College English* 34.2 (1972): 256-66.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Rev.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English, Richard. "Socialism: Socialist Intellectuals and Irish Revolution." *The Irish Revolution, 1913-1923*. Ed. Joost Augusteijn. New York: Palgrave, 2002. 203-19.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Gibson, Andrew. *James Joyce*. London: Reaktion Books, 2006.
- Gorman, Herbert. *James Joyce: A Definitive Biography*. London: John Lane, 1941.
- Joyce, James. *Dubliners*. Eds.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9.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8.
- \_\_\_\_\_. *Ulysses*. Eds. Hans Walter Gabler, Wolfhard Steppe, & Claus Melchior. New York: Random House, 1986.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 I. Ed. Stuart Gilbert.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7. Vols. II and III, Ed. Richard Ellman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6.
- \_\_\_\_\_. *The Critical Writings*. Ed.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9.
- Joyce, Stanislaus. *My Brother's Keeper: James Joyce's Early Years*. Ed. Richard Ellman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8.
- Kee Robert. *Ireland: History*. London: Sphere Books, 1982.
- Manganiello, Dominic. *Joyce's Polit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0.
- O'Brien Joseph V. *Dear Dirty Dublin: A City in Distress, 1899-1916*.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Radek, Karl. "Contemporary World Literature and the Tasks of Proletarian Art." *Problems of Soviet Literature: Reports and Speeches at the First Soviet Writers' Congress*. Ed. H. G. Scott.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79. 73-182.

**Abstract****Reconciling Parnellism with Socialism:  
“Ivy Day in the Committee Room”**

Taeun Min

Joyce's deep-rooted Parnellism is well known and his interest in socialism, especially during his writing of “Ivy Day in the Committee Room,” is undeniable, as evidenced by his letters and biographies. But the question can be raised on how these seemingly conflicting causes can coexist in Joyce's mind, for there seems to be an unbridgeable gap between Irish middle-class nationalism and Irish labor. Unexpectedly, however, these two turn out to be reconciled with each other, as is illustrated by the story. This study refutes the argument that the socialist Joyce is irreconcilable with the Parnellite Joyce.

In the story the Nationalists who claim Parnell's mantle are contrasted with the dead leader in many ways; they are unworthy, venal, and ineffectual. Tierney, the nationalist candidate, is in particular presented unfavourably against the labor candidate, Colgan, one who reminds us of Connolly, who was the real socialist candidate against Nationalists in municipal elections and was also influential on Young Joyce. Tierney is under the Nationalist flag; however, he seems to be not against British imperialism and capitalism. Far from being a Parnellite, he is strongly supported by the anti-Parnellite Catholic clergy. The only true Parnellite in the story is Joe Hynes. Interestingly, he is a supporter for the labor candidate, not the nationalist who claims to be a Parnell's successor. Here it is worth noting that Hynes is also suspected of being a Fenian and that Parnell, socialists, and Fenians share the common enemy, the Church. Joyce, being an anticlericalist, will surely belong to the same group as Hynes. Further, as Connolly asserted, the cause of Parnellite nationalism and that of socialism are the same. As his story demonstrates,

Joyce shows that Parnellism can be reconciled with socialism, even though they might look like mutually cancelling alternatives.

■ **Key words:** socialism, Parnellism, nationalism, Church, Ivy Day in the Committee Room, Parnell, Connolly  
(사회주의, 파넬주의, 민족주의, 교회, 선거사무실의 파넬 추모 일, 파넬, 코넬리)

논문 접수: 2008년 5월 20일

논문 심사: 2008년 6월 5일

게재 확정: 2008년 6월 13일